

노동조합소식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 868-8133, Fax 868-8136
연제구 연산동 739-24 그린빌딩6층

www.penlu.or.kr

발행인 : 이영호
편집인 : 장성호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긴급한 현안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교육감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 * 일 시 : 2007. 5. 2. 11:00 -
- * 안 건
 1. 성과상여금 운영방법 개선 요구
 2. 연가보상비 축소지급 중단 요구

성과상여금 운용 방법 개선 요구

성과상여금 제도는 소속공무원중 업무의 성과에 따라, 우수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선의의 경쟁 유발을 통한 업무의 능률 향상 등을 통한 조직의 발전을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성과상여금 제도의 운용방법을 보면 매년 성과상여금 지급후 그에 따른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소속직원들 사이에 위화감의 조성은 물론, 그로인한 사기 저하와 근무의욕의 상실 등 조직내부의 직원 간 갈등요인이 되고 있어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다음과 같이 성과상여금 운용 방법 개선 및 2007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1. 성과상여금의 개인별 순위결정 도구(근무실적평정, 다면평가, 혁신마일리지)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방법과 절차 및 내용은 전체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며, 결과를 포함한 모든 내용은 공개하라.
2. 개인별 순위결정 항목 중 근무실적평정은 학교 근무자와 교육청 근무자와는 동일기준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하므로 교육청 근무자와 학교근무자를 분리하여 평정하라.
3. 업무성격은 다르나 동일기관내 성과상여금 지급율을 차등화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바, 균등지급 비율(90%), 차등지급(10%)률을 동일화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 자료공개
 - 개인별 근무실적 평정 및 다면평가 기준과 결과 공개
 - S등급 선정 기준과 소속 근무지별 분포 비율 공개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 2007년도 S등급 지급명단을 노동조합에 공개

연가보상비 축소 지급 중단 요구

현재 교육감은 급여성격의 실비보상항목인 연가보상비 일수를 종전의 20일에서 12일로 임의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바, 이는

- 공무원의 후생복리를 증진시켜나가야 함에도 사기를 위축시키고 근무의욕을 상실하는 효과외에 아무런 실효가 없는 조치라 할 것이며
- 현행의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행정자치부 휴가업무처리지침에도 20일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향후 공무원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수당 신설은 물론 지급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함에도 현행의 지급기준 조차도 낮추려는 것은 공무원의 급여를 더욱 열악하게 하는 조치에 다름없다 할 것이므로
-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전체조합원과 그 외 전체 지방공무원의 이름으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면담결과

△ 성과상여금 운영방법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부교육감은 노동조합의 개선 요구 사항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내년에는 전체공무원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여 계급·직렬별 지급순위 단위 결정 방법을 포함한 근무실적평정과 다면평가에 있어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합과 협의하여 운영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교육청 근무자와 학교근무자를 분리하여 지급순위 단위 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자료공개 요구부분은 담당자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하여 공개할 것을 지시하였다.

△ 연가보상비 축소지급 중단 요구 사항에 대하여

부교육감은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연가를 통해서 가중한 업무로부터 해방되어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함이며 또한 시의회 예산안 심의시 부산시의 경우 10일 밖에 보상하지 않는데 교육청은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20일을 보상한다는 것은 제고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있고 해서 이 사항을 검토하게 되었다.